

주한외국대사관 통번역 인력의 고용 및 직무에 관한 실태 및 인식조사

A Survey into Job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Personnel in Char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Foreign Embassies in Korea

저자 (Authors)	홍설영, 정철자 Hong, Sulyoung, Jeong, Cheolja
출처 (Source)	번역학연구 19(5), 2018.12, 205-240(36 page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9(5) , 2018.12, 205-240(3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번역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79420
APA Style	홍설영, 정철자 (2018). 주한외국대사관 통번역 인력의 고용 및 직무에 관한 실태 및 인식조사. 번역학연구 , 19(5), 205-240
이용정보 (Accessed)	고려대학교 163.***.133.25 2021/02/24 10:3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주한외국대사관 통번역 인력의 고용 및 직무에 관한 실태 및 인식조사*

홍설영 · 정철자
(한국외대)

1. 들어가며

통번역에 있어 정치외교 분야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정치외교 텍스트는 통번역대학원의 통역 수업 및 통역의 실무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텍스트인데 (이혜승, 2006: 122), 이는 정치외교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異) 언어 간 담화가 그 빈도 및 용도에 있어 통역사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정치외교 및 담화/텍스트 생산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한외국대사관들이다. 이들 대사관의 외교단은 한국 측 인사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대사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시민들과 해당국 인사들 간에 술한 만남의 기회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인사나 대표단이 방한을 하면 대사관 소속의 통역사가 통역을 지원해주는 것이 관례이

* 이 연구는 201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다. 그러므로 이상의 모든 상황으로 보건대 주한외국대사관 내에서는 통역의 수요가 크게 발생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주한외국대사관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한국어와 외국어의 두 가지 언어로 제작되어 있고 대사의 연설문의 원천 텍스트와 번역된 목표 텍스트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대사관의 공보과에서는 여러 행사를 알리는 보도자료 등을 수시로 배포하는데, 이를 통해 대사관의 번역 수요 또한 상당하리라 예측해볼 수 있다.

외교통역사란 “외무부 등 정부부처 소속으로 최고위급까지의 모든 회의를 순차, 동시 통역으로 처리하는 회의통역사”(곽중철, 2001: 10)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외교통역은 즉각성, 역동성, 의사소통성, 정치적 민감성의 측면에서 여타 통역 분야와는 대별되며(양(Yang), 2011: 49), 외교 통역사가 접하게 되는 고위급 회담은 주제의 복잡성, 장시간의 대화, 참가자들 간의 긴장과 스트레스의 특징들을 지닌다(바이고리-할론 & 페르난데스-산체스(Baigorri-Jalón, & Fernández-Sánchez), 2010: 3). 한편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식번역은 기관번역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이때 기관번역으로 기관은 이데올로기를 강화 및 재생산을 하게 된다(최진실, 2014: 49). 이상에서 보듯 주한외국대사관의 통번역 인력은 고위급을 대상으로 민감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기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다양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리라는 점 역시 추측이 가능하다.

전문 통번역사들과 통번역 전문교육기관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자국의 공공외교 증진을 위해 일하는 주한외국대사관들이 통번역 인력의 주요 고용 주체라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한외국대사관에서 통번역 업무를 누가, 어떤 형태로 담당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설문조사를 통해 주한외국대사관 통번역 담당 인력의 고용과 직무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고, 보다 넓게는 외교 분야 통번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통번역의 전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들이 통번역사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무의 실태와 역할 인식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문헌 조사

본고의 주제와 연관된 정치외교 분야의 통번역, 인하우스 통번역, 통번역 시장조사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정치외교 통역과의 연관성을 지닌 현존 연구로는 정치 텍스트에 대한 통역 교수법(이혜승, 2006), 정치외교 분야 통역 방법론(황지연, 2003), 외교정치 회견 통역(곽중철 2001)을 주제로 다룬 연구를 들 수 있다. 이혜승(2006)은 통역 교육기관과 실무에서 정치적인 텍스트가 다루어지는 빈도와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관용어구, 속담, 은유를 아우르는 정치 텍스트의 비유적 표현에 대한 통역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통역 수업상황을 상정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담은 러시아어 정치텍스트를 제시하면서, 해당텍스트의 제시 및 문맥파악, 토론 및 자기교정, 현장 시뮬레이션 실습이라는 3단계 학습법을 제안하였다. 황지연(2003)의 경우 의미적 등가를 중시하는 해석이론에 따라 정치외교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통역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정치외교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한 후,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정치외교 텍스트를 통역할 시 어휘배합과 선택, 의미단위와 논리관계 분석 등 어휘 및 문장의 차원에서 통역사가 유념할 구체적인 통역 전략과 기법을 제시하였다. 곽중철(2001)은 국내에서 정치외교 회견 통역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유형에 대한 분류를 제시한 후, 이러한 회견을 둘러싸고 통역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통역사의 역할과 바람직한 회견 통역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한편 정치외교 번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보다 근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외교 연설문의 번역교육을 논한 연구(박소영, 2015)와 외교부 언론 브리핑의 번역에 관한 연구(최진실, 2014)가 있다. 박소영(2015)은 연설문의 구조적, 문체적, 수사적 특징을 분석한 후 외교 연설문에 토대한 통번역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여 관련 학습 및 평가 활동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번역 교육에 적용하였는데,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의 스페인어에서 한국어로의 외교연설 번역의 오류를 어문 규정, 어휘와 의미, 문장, 표현, 문장접속과 배열을 준거로 삼아 분석하여 번역 교육의 실제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최진실(2014)은 기관번역의 맥락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기의 한국 외교부 언론 브리핑에 대한 영어 번역을 브리핑 영상 원본과 한국어 전사본과의 대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

석의 초점은 번역에서 드러난 변경 가운데 문체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지 않은 변경에 두었는데, 특별히 번역에서의 생각과 추가 현상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정보 추가 및 변경, 응집성 향상, 반복과 망설임 삭제, 내용 정정, 행위자 명시, 내용 복원이라는 변경 현상들이 번역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정치외교 통번역을 주제로 하는 이상의 모든 선행연구들은 특정 정치외교 상황 혹은 텍스트를 상정하여 통번역의 특징을 논하거나 특정 언어방향의 사례를 토대로 통번역 교육, 교수법 및 방법론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한편 본고와 역시 관련된 주제로 인하우스 통번역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내용에 따라 1) 고용 실태와 직무 분석, 2) 직업지위 연구라는 두 가지 경향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의 고용 실태와 직무 분석을 다룬 연구로는 박지영(2016), 김종희(2013-2015), 김현정(2015)이 있다. 박지영(2016)은 직무분석 기법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정식 통번역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하우스 영어 통번역사들의 고용 현황 및 직무를 조사하였다. 채용기준, 고용조건, 수행 업무의 내용들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어사용권 국가 장기 거주 경험과 외국어 능력 증빙을 통해 입사를 하고, 고용 형태로는 정규직이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대외 소통을 위한 문서와 사내문서 등 통역보다는 번역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었으며, 통역은 수행과 대화 상황에서 노트 테이킹을 수반하지 않은 순차통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김현정(2015)은 통번역 석사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아우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담당 지자체 통번역사 8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연간 업무일지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문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심층인터뷰로 보완하여 양적 및 질적 방법을 결합한 것이 특징적이다. 업무내용 분석과 관련하여 응답자 전원의 공통점은 예방/면담, 리셉션, 수행 등의 상황에서 순차통역을 가장 많이 실시하며 이들의 동시통역 수행 기록은 부재하다는 점이다. 또한 번역 업무의 경우 공문, 기념사 등의 번역이 주류를 이룸이 확인되었다. 인터뷰 조사 결과, 이들은 업무와 처우에 대해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불만족의 이유는 대부분은 조직이 요구하는 통번역 외적인 업무와 자신의 조직 내 위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희(2015)의 연구에서는 10명 미만의 사기업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을 대상으로 문화기술학적 심층면담이라는 질적 연구기법을 적용해 이들의 직무 경험을 조

사하였다. 직업정체성과 수요전망 등을 아우르는 항목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처우와 통번역 업무에 대한 자부심 등에 기반해 약 70-80%의 직무만족도를 보인 데 반해 현 직장에서만 아니라 인하우스 통번역사 자체로서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비율은 낮다고 하였다. 이는 계약직이자 소모품이라는 정체성, 통번역에 대한 사측의 낮은 이해도, 오리엔테이션 부재에 따른 업무 적응의 어려움 등에 기인했을 수 있다. 이들의 향후 통번역 수요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으로, 수요 감소를 예측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한편 김종희(2013)에서는 사기업, 정부기관, 지자체에 몸담은 40명 남짓의 인하우스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고용형태, 직무내용, 업무의 어려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통번역 석사과정을 마친 근무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긴 했으나 응답자의 1/4 가량은 학부 졸업자인 것이 특이할만 했으며,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정규직은 응답자의 약 1/4만을 차지했으며 응답자의 70% 이상이 3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직책과 관련하여는 약 60%가 통번역사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들은 통번역 업무 외에도 행정, 수행, 조사 및 문서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차통역과 수행통역이 주로 담당하는 통역이었고, 번역은 메일과 공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특이할 점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통번역 업무의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통역에 대해서는 장시간의 통역, 통역사에 대한 배려가 없는 연사, 전문용어가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번역에 대하여는 시간 대비 많은 번역분량과 어휘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업지위에 관한 연구로, 직업지위 인식을 다룬 연구(임세인, 2018)와 언론사 뉴스 번역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홍정민, 2014)가 있다. 임세인(2018)은 한영 인하우스 통번역사와 사용자 총 1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직업지위와 관련된 인식을 조사였다. 그 결과 통번역사에게는 조직 내 가치가, 사용자들에게는 통번역 역량과 전문성, 업무 자율성이 지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이 되었다. 홍정민(2014)은 한국 내 언론사 뉴스의 번역을 담당하는 번역사와 기자의 지위를 비교하는 설문 연구를 하였다. 응답자를 구성하는 번역사 집단은 언론사의 한영 번역을 수행하는 자들로, 인하우스와 프리랜스 번역사들을 아우른다. 이들과 기자들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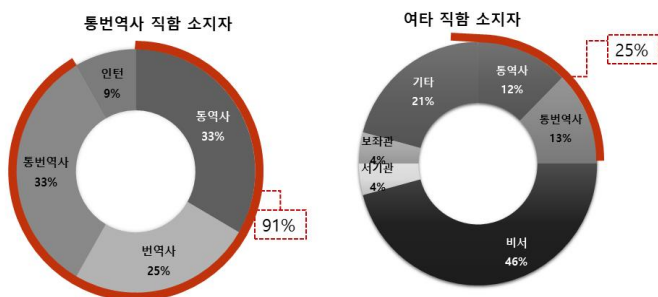
상으로 전문성, 정체성, 영향력, 가시성, 보수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번역사들이 지위와 관련된 항목 전반에서 기자보다 낮은 지위를 가지며 이들의 낮은 가시성과 제한적인 역할, 언론사가 이들을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 번역사의 지위 간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의 고용 및 직무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담당 언어와 기관 및 응답자들의 특성 그리고 적용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상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다음과 같은 국내 인하우스 통번역의 특성들이 어느 정도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통번역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가 인하우스 통번역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통역 유형은 순차통역이 절대적으로 높고 전반적으로 번역이 비중이 통역보다 우세한 편이다. 둘째,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은 스스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직무 만족도, 보수가 모두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직업 정체성과 자기이미지에 있어 불안 요인들인 존재하는데, 이는 고용불안정, 고용형태 및 이에 따른 통번역사의 조직 내 위치와 고용주의 인식에 대부분 기인한다. 셋째, 이들 통번역사들은 통번역사 외적인 직함을 소지하고 통번역사 외적인 업무도 병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체로 실태조사와 인식조사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목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기관을 인하우스라는 공통점으로만 묶거나, 대분류를 하더라도 민간, 지자체 등의 단위에 머물러 있어 정밀한 통번역의 전문영역을 조명하지 못한 한계점이 남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치외교라는 전문영역 가운데서도 주한외국대사관의 통번역 인력에 대한 보다 정밀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주한외국대사관에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직무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2018년 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상호 협의를 거쳐 설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일부 응답자들에게 설문을 예비적으로 실시하여 항목에 들어갈 내용들을 점검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이후 통계 전문가에게 설문지의 타당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설문의 실시와 분석을 위한 내용 및 문항 형식을 수정하여 설문지의 최종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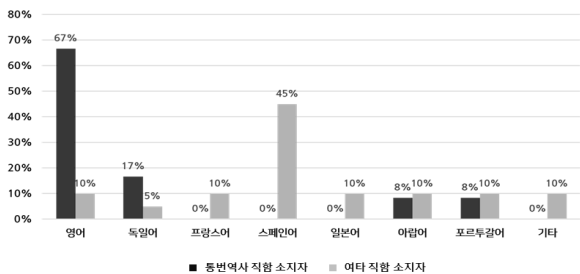
을 완성하였다. 주한외국대사관의 통번역 인력은 외부에서 쉽게 파악 및 접근이 힘든 집단인 관계로, 응답자 선정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이자 연결소개표집(chair referral sampling)으로도 불리는 눈덩이표집법(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연구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소수의 대사관 통번역 인력에서 출발하여 이들 인력 및 주변 지인들의 추천으로 연구를 위해 유의한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 응답자를 순차적으로 소개받는 방식이다. 응답자들에게는 통계법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응답자에 관한 정보와 응답내용에 대한 기밀 보장을 약속하였다. 본 설문 of 최종 응답자수는 총 30명으로, 이들의 소속은 미국, 호주, 가나, 프랑스, 세네갈, 독일, 오스트리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일본, 오만,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이상 17개국의 대사관이다.



〈그림 1〉 직함

응답자들의 직함에 따라 직무의 실태와 인식을 고찰한다는 본고의 목적을 위해 모집단을 통번역사 직함 소지자와 여타 직함 소지자로 분류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응답자 가운데 대사관에서 통번역사의 직함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2명(36.66%), 여타 직함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8명(63.34%)이다. 통번역사 직함을 소지한 응답자의 91%는 통역사, 번역사, 통번역사의 직함으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 1명은 통번역 인턴이다. 이에 반해 여타 직함으로 근무하는 응답자 집단에서는 직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비서’로 나타났고, 본인의 공식 직함 외에 ‘통역사’, ‘번역사’, ‘통번역사’의 직함을 겸하는 비율은 25%에 그쳤다.¹⁾

통번역사 직함을 가진 응답자들의 다수(67%)는 영어 통번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타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들은 스페인어 통번역을 담당하는 비율(45%)이 가장 높다. 이들의 통번역 대상 외국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이상 7개 언어이다.²⁾ 직함에 따른 응답자들의 업무 담당 언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보 및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응답자들의 업무담당 언어

이들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은 단독 객관식 문항, 객관식 상위문항과 주관식 하위문항, 단독 주관식 서술형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주제의 대분류에 따른 세부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 1) 참고로 통번역사 직함의 소지자들이란 직함 관련 질문 항목에 대하여 통역사, 번역사, 통번역사 가운데 하나를 택한 응답자들이며, 여타 직함 소지자들은 비서, 서기관, 보좌관, 인턴, 기타 직함으로 근무한다고 답한 이들이다. 직함 관련 질문은 복수응답 문항으로, 이에 대해 여타 직함과 통번역사 직함을 겸하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총 6명(약 18.75%)이다. 이들은 주된 직함 외에 통번역사의 직함을 함께 쓰는 인원인 관계로 이들은 여타 직함 소지자 집단에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했음을 밝혀둔다.
- 2) 업무 언어를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영어 10명, 프랑스어 2명, 독일어 3명, 스페인어 9명, 일어 3명, 아랍어 3명, 포르투갈어 1명이다.

〈표 1〉 설문 문항 분류 및 내용

대분류	문항 분류	질문 내용
실태 조사	응답자 정보	연령, 성별, 근무기간, 직함, 고용형태, 담당언어
	고용 자격 및 절차, 직무내용	통번역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 기관, 채용 정보를 접한 경로, 선발자격요건, 평가시험 유무 및 시험의 내용, 통번역 여타 업무의 직무 내용(업무 비중, 언어 방향, 통역 사용자 정보, 번역의 용도 및 텍스트 유형), 연봉수준
인식 조사	직무환경과 전망	통번역 교육 이수의 중요성 인식, 역할 만족도,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보람, 역할 갈등, 통번역 수요 전망

이상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응답자들의 직함을 데이터 분석의 준거로 삼아 1차 분석에서는 통번역사 직함 소지자와 여타 직함 소지자의 두 집단으로 응답자를 분류하여 각각에 대하여 객관식 문항의 빈도 분석과 주관식 문항에 대한 주제별 코딩 분석을 하여 데이터 해석을 실시하였고, 2차 분석에서는 두 집단에 대하여 직무 실태와 인식에 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4. 분석결과

본장에서는 설문 응답의 항목에 따라 우선 직함에 따른 두 응답자 집단에 대한 결과를 각각 설명한 후, 종합논의를 하고자 한다.

4.1 통번역사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 분석

4.1.1 실태조사 분석결과

통번역사 직함으로 근무하는 응답자들의 기본 정보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고용 자격, 절차, 직무내용과 관련된 답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연령과 성별에 대한 응답을 보면 30-40대의 여성이 주 연령임을 알 수 있다.³⁾ 또한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다수가 정규직 상근 통번역사로 근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⁴⁾ 한-영 통번역 업무를 맡은 응답자가 가장 많이 분포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기존에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통번역 교육을 받았으며, 대학원(석사과정)에서 통번역을 전공한 인원이 약 80%를 차지했다.⁵⁾

‘대사관에 입사 시 본인에게 요구된 중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통번역대학원 졸업 여부, 외국어 구사능력 및 시험, 경력’ 등의 답이 도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통번역 대학원 졸업 여부’이다. 한편 채용정보를 접한 경로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정부 및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접한 경우와 지인 추천이 응답자들이 대사관의 통번역직 채용정보를 접한 주요 경로임을 알 수 있다⁶⁾.

채용 시 평가시험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92%가 시험을 치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역량 평가 시험 중 ‘인터뷰’와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을 가장 많이 치렀으며,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순차통역 구술시험’,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순차통역 구술시험’, 그리고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이 뒤를 이었다. 한편 통번역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직장의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의 유무에 관하여는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중 25%에 지나지 않았다.⁷⁾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통역 업무 관련 문항을 살펴보겠다. 응답자의 75%가 대사관에서 통역 업무를 한다고 답하였으며, 이들이 수행하는 통역 유형은 주로 순차통역으로 순차통역이 93%, 동시통역은 7%를 차지하였다. 통역의 언어

- 3) 연령: 20대(8.33%), 30대(41.67%), 40대(41.67%), 50대(8.33%), 60대 이상(0.00%), 성별: 남성(16.67%), 여성(83.33%)
- 4) 고용형태: 정규직 상근 통번역사(75.00%), 계약직 상근 통번역사(0.00%), 파트타임 통번역사(8.33%) 대사관 상근 직원(8.33%), 대사관 계약직 직원(8.33%), 기타(0.00%)
- 5) 대학원에서 통번역 전공(78.57%), 대학(학사과정)에서 통번역을 전공(14.29%), 통번역 학원을 다님(7.14%)
- 6) 채용정보를 접한 경로: 정부/대사관의 홈페이지(41.56%), 외부 광고(0.00%), 지인의 개인추천(41.67%), 기타(16.67%).
- 7) 응답자들 가운데 독일어 통번역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독일 외무부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응답자 가운데 영어 번역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명이 매년 미국 국무부가 제공하는 교육 가운데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답하였다.

방향에 따른 업무 분포를 보면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통역이 64%,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통역이 35%로,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통역이 그 반대 방향보다 2배 가량 높다. 응답자들의 통역 서비스를 받는 통역의 주된 사용자는 외교관(32.14%), 부대사(28.57%), 대사(25.00%)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건대 이들은 대사나 부대사를 전담하는 인력이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외국인 실무진 인력에게 통역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타에 해당하는 그 밖의 통역 사용자로는 ‘현지인력, 한국 방문 정부 고위 관료, 의원, 대사 및 외교관 부인 및 가족, 대표단’을 들었다.

한편 응답자들이 주로 맡는 통역의 상황은 예방과 면담이 같은 비율인 약 2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세미나/워크숍 및 공식회담이 그 뒤를 이었다⁸⁾. 기자회견은 이들이 맡는 통역 상황의 약 11.5%를 차지하며, 기타 의견으로 ‘민원인과의 간단한 통역, 방한 사절단 통역, 협상, 리셉션, 오찬, 조찬, 화상회의’ 등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주로 맡는 번역의 문서 유형으로는 기사, 인터뷰자료, 연설문의 번역을 주를 이루었으며, 보도자료, 사설/오피니언, 보고서, 그리고 이메일의 번역이 그 뒤를 이었다.⁹⁾ 응답자 전원은 대사관에서 번역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번역의 언어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보다는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을 2배 가량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한편 ‘주로 맡게 되는 번역의 용도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대사/부대사/외교관 등 상직자에게 보고(21.43%), 홈페이지 업로드(21.43%), 외부 배포(19.05%) 등이 주된 용도인 것으로 드러났다.¹¹⁾

8) 주로 맡는 통역 상황: 예방(22.86%), 면담(22.86%), 세미나/워크숍(17.14%) 공식회담(17.14%), 기자회견(11.43%), 기타(8.57%)

9) 주로 맡는 번역의 문서 유형: 기사(18.64%), 사설/오피니언(13.56%), 보도자료(15.25%), 인터뷰자료(16.95%), 보고서(10.17%), 연설문(16.95%), 이메일(5.08%), 기타(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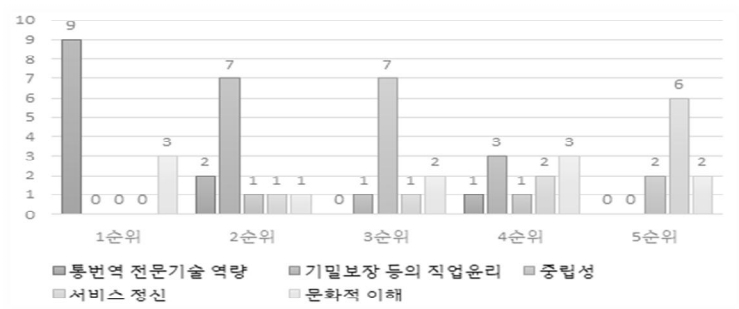
10) 언어방향에 따른 번역의 비중: 외국어→한국어로의 번역(평균: 38.75 / 표준편차: 28.29%), 한국어→외국어로의 번역(평균: 61.25 / 표준편차: 28.29%)

11) 번역의 주된 용도: 대사/부대사/외교관 등 상직자에게 보고(21.43%), 홈페이지 업로드(21.43%), 외부 배포(19.05%), 내부 직원 간 공유 및 조회(16.67%), 언론 보도 및

4.1.2 인식조사 분석결과

다음에서는 통번역사 역할 인식, 직무 만족도, 업무 수행의 보람, 역할 갈등, 기관의 향후 통번역 수요 전망의 순으로 통번역사 직함으로 근무하는 응답자들의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번역사의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중요도 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문항에 제시된 다섯 가지의 역량¹²⁾ 중 통번역 업무에 한하여 중요도 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그림 3>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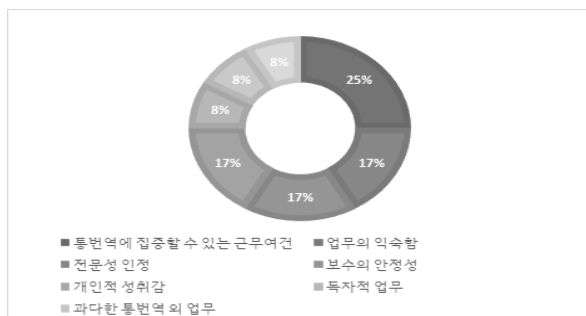
<그림 3> 역할 중요도 순위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통번역 전문기술 역량 -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 - 중립성 - 문화적 이해 - 서비스 정신’의 순으로 역량의 중요도 순위를 정리할 수 있겠다¹⁴⁾.

계재(16.67%), 기타(4.76%)

- 12) 1) 통번역 전문기술 역량, 2)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 3) 중립성, 4) 서비스 정신, 5)문화적 이해
- 13) <그림 2>는 각 순위별 응답의 분포를 나타냈다. 각 막대 위에 표기된 숫자는 응답자의 수로 총 몇 명이 해당 역량을 몇 순위에 적었는지 알 수 있다.
- 14)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역량은 ‘통번역 전문기술 역량’으로 9명의 응답자가 ‘통번역 전문기술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답했다. 그 외 3명은 문화적 이해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역량은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가 선택되었다. 7명의 응답자가 2순위에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를 답했다. 또한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역량은 ‘중립성’으로 7명의 응답자가 3순위에 ‘중립성’이라 답했다.

다음으로 통번역 업무에 대한 역할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¹⁵⁾ 현재의 통번역 직무에 따른 역할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객관식 문항에 따른 이유를 묻은 주관식 응답은 총 21개의 범주¹⁶⁾로 분류가 되었다. 이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¹⁷⁾



〈그림 4〉 역할에 만족하는 응답자들의 만족의 이유

위의 그림은 통번역을 직함으로 하는 응답자 중 자신의 직무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정리한 결과이다. 25%가 ‘통번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직무 만족의 이유라고 답했으며, 그 뒤로 ‘업무의 익숙함’, ‘전문성 인정’, 그리고 ‘보수의 안정성’이 뒤를 이었다.¹⁸⁾ 한편 응답자 중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답하지 못한 응답자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사람이 없어, ‘보통이다’로 답한 응답자의 의견만 정리되었다. 이들은 비슷한 빈도로 ‘업무의 익숙함

15) 매우 만족한다(8.33%), 만족하는 편이다(66.67%), 보통이다(25.00%)

16) 1) 업무의 익숙함, 2) 개인적 발전, 3)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 4) 통번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 5) 전문성 인정, 6) 개인적 성취감, 7) 보수의 안정성, 8) 근무시간 만족, 9) 독자적 업무, 10) 번역해야 할 방대한 자료, 11) 전공지식과 현장 간의 괴리, 12)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 13) 비교적 적은 통번역 업무, 14) 업무량 대비 적은 보수, 15) 동기부여 부족, 16) 통번역의 질 저하, 17) 특별 수당 미집급, 18) 통번역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부족, 19)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적음, 20) 장단점 상쇄, 21)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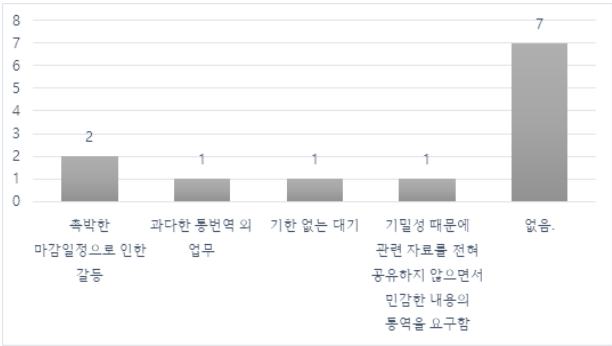
17)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복수 응답 처리되었다.

18) 실제로 한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이유에는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로 답하였는데, 이는 매우 만족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34%)’,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33%)’, ‘동기부여 부족(33%)’을 직무 만족도가 보통인 이유로 답했다.

다음으로 통번역 업무 수행 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 대한 모든 답변은 총 7개의 범주¹⁹⁾로 분류되었다. 이를 토대로 답변을 분석한 결과,²⁰⁾ 통번역을 직함으로 하는 응답자 중 6명은 ‘양국 소통을 도움’이라는 측면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서 ‘긍정적 결과 도출’ 시에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통번역 업무 수행 시 고용주의 기대/요구와 본인의 역할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답하는 문항에 대하여도 우선 모든 응답에 대한 범주화를 실시한 결과, 총 13개의 범주²¹⁾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²²⁾



<그림 5> 통번역 업무 수행 시의 역할갈등(※막대 상단의 숫자: 응답자수)

19) 1) 양국소통을 도움, 2) 문화 전달, 3) 매끄러운 면담 진행, 4) 긍정적 결과 도출, 5) 전공 연계의 업무, 6) 통역사로서의 공로 인정, 7) 없음

20)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복수 응답 처리되었다.

21) 1)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 2) 통역사로서의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움, 3) 촉박한 마감일정으로 인한 갈등, 4) 번역의 질 저하, 5) 계약 조건보다 더 많은 업무, 6) 기한 없는 대기, 7) 개인적인 업무 전가, 8) 사적인 자리에서의 통역, 9) 미협된 통역, 10) 기밀성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전혀 공유하지 않으면서 민감한 내용을 통역할 것을 요구, 11) 전문적 통번역 요구(응답자가 전문 통역사가 아님), 12) 특별 수당 미지급, 13) 없음

22)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복수 응답 처리되었다.

위에서 보듯, 통번역을 직함으로 하는 응답자 중 7명은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그 외에 ‘촉박한 마감일정으로 인한 갈등’ 등 어려움을 답했다.

설문의 마지막 객관식 문항에서는 소속 대사관의 향후 통번역 업무의 수요에 대한 전망을 물었으며, 그에 대한 이유를 주관식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주관식 응답에 대하여는 총 8개의 범주²³⁾가 도출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주관식 응답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약 41%는 현행 수준 유지를 택했으며, 또 다른 41%는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제시한 것은 ‘언어 능통자 수 증가’이다.

4.2 통번역사 외의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 분석

다음에서는 통번역사 외의 직함을 지닌 응답자들의 기본정보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고용 자격, 절차, 직무내용과 관련된 답변의 분석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4.2.1 실태조사 분석결과

응답자의 기본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 응답자의 주 연령대는 20대와 30대이며 전원이 여성이다.²⁴⁾ 또한 고용형태로는 대사관 상근직원이 가장 큰 분포를 보였다.²⁵⁾ 여타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들은 2/3가량(67%)만이 통번역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교육을 받은 이들 가운데 통번역대학원 졸업자들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²⁶⁾

23) 1) 언어 능통자 수 증가, 2) 기술발전, 3) 교역의 증대, 4) 일정한 대사관 업무, 5) 일정한 외교 업무, 6) 예측이 어려움, 7) 이미 충원됨, 8) 예산부족

24) 연령: 20대(22.22%), 30대(66.67%), 40대(5.567%), 50대(5.56%), 60대 이상(0.00%)

25) 고용형태: 정규직 상근 통번역사(16.67%), 계약직 상근 통번역사(11.11%), 파트타임 통번역사(0.00%) 대사관 상근 직원(44.44%), 대사관 계약직 직원(16.67%), 기타(11.11%)

26) 구체적으로 대학원(석사과정)에서 통번역을 전공(75.00%), 대학(학사과정)에서 통번

‘대사관에 입사 시 본인에게 요구된 중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언어구사 능력’이다. 응답자 중 다수는 대학원에서 통번역을 전공했다고 하였는데, 통번역 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도 약 33.33 %이다. 응답자들 가운데 5년 이하로 근무한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직함으로는 ‘비서 겸 통/번역사’가 가장 많았다.²⁷⁾

한편 채용정보를 접한 주요 경로로는 지인의 개인추천이 가장 많았고, 정부 및 대사관 홈페이지가 그 뒤를 이어²⁸⁾ 통번역사 직함을 소지한 응답자들과 비교적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²⁹⁾ 이들은 78%가 입사 시 평가시험을 치렀는데, 역량 평가 시험 가운데 ‘인터뷰’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과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이 뒤를 이었다. 평가 시험 관련 기타 의견으로 ‘영어 타이핑, 한국어 구술시험’이 있다. 한편 통번역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직장의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에 대해 응답자 전원은 ‘없다’고 답하였다.

다음은 통역 업무와 관련된 문항의 답변이다. 응답자들의 전원은 대사관 내에서 통역 업무를 하고 있으며, 순차통역을 수행하는 비중이 동시통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³⁰⁾ 이들이 수행하는 통역의 언어방향은 한국어에서 외국어, 외국어에서 한국어의 비중이 비교적 균등하다.³¹⁾ 대사관 내에서 이들 통역의 주된 사용자는 외교관, 대사, 부대사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³²⁾ 이들이 주로 맡는 통역의 상황은 면담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예방, 공식회담, 세미나, 기자회견의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³³⁾

역을 전공(8.33%), 사내 통번역 위탁교육(8.33%), 기타(8.33%)의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27) 참고로 응답자 중 스페인어 통번역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로 ‘영-아, 영-불 번역’도 있다.

28) 채용 정보를 접한 경로: 정부/대사관의 홈페이지(22.22%), 외부광고(0.00%), 지인의 개인추천(55.56%), 기타(22.22%)

29) 기타 의견으로는 ‘대학원 홈페이지’, ‘외교부 추천’ 등이 있다.

30) 응답자의 97%가 순차통역을 주로 하고 있으며, 동시통역은 2.22%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통역의 언어방향 분포: 한국어 → 외국어(52%), 외국어 → 한국어(48%)

32) 통역의 주된 사용자: 대사(33.33%), 부대사(15.56%), 외교관(35.56%), 기타(15.56%)

33) 주로 맡는 통역 상황: 예방(24.00%), 면담(36.00%), 세미나/워크숍(12.00%) 공식회담

한편 응답자들 중 번역 업무를 하고 있는 비율은 100 %로, 이들이 번역하는 문서의 유형은 기사, 인터뷰자료, 보고서이며, 연설문, 이메일, 보도자료, 사설/오피니언이 그 뒤를 이었다.³⁴⁾ 번역의 언어방향은 한국에서 외국어로의 번역이 그 반대 방향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⁵⁾ ‘주로 맡게 되는 번역의 용도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은 대사/부대사/외교관 등 상직자에게 보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외부배포와 내부 직원 간 공유 및 조화가 그 뒤를 이었다.³⁶⁾

4.2.2 인식조사 분석결과

다음으로 여타 직함으로 근무하는 응답자들의 역할 인식, 직무 만족도, 업무 수행의 보람, 역할 갈등, 기관의 향후 통번역 수요 전망에 대한 답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번역을 직함으로 하지 않는 응답자는 별도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직함에 따른 업무와 통번역을 병행하는 점에 대한 장단점’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을 하고자 제시된 모든 응답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범주화한 결과 장점에 대해 총 8개의 범주,³⁷⁾ 단점에 대한 총 9개의 범주³⁸⁾가 도출되었다. 이상을 토대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³⁹⁾

(20.00%), 기자회견(8.00%), 기타(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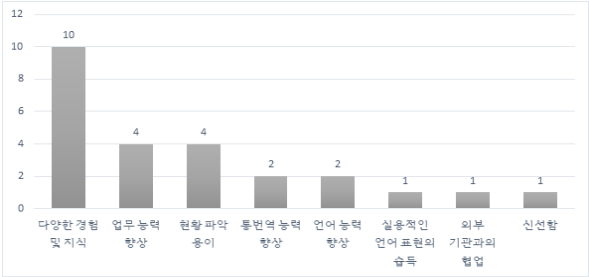
34) 주로 맡는 번역의 문서 유형: 기사(13.79%), 사설/오피니언(10.34%), 보도자료(12.64%), 인터뷰자료(16.09%), 보고서(14.94%), 연설문(13.79%), 이메일(13.79%), 기타(4.60%)

35) 언어방향에 따른 번역의 비중: 외국어→ 한국어로의 번역(평균: 38.61 / 표준편차: 23.87)%, 한국어→ 외국어로의 번역(평균: 61.38 / 표준편차: 23.87)%

36) 번역의 주된 용도: 대사/부대사/외교관 등 상직자에게 보고(36.17%), 홈페이지 업로드(10.64%), 외부 배포(21.28%), 내부 직원 간 공유 및 조회(14.89%), 언론 보도 및 게재(10.64%), 기타(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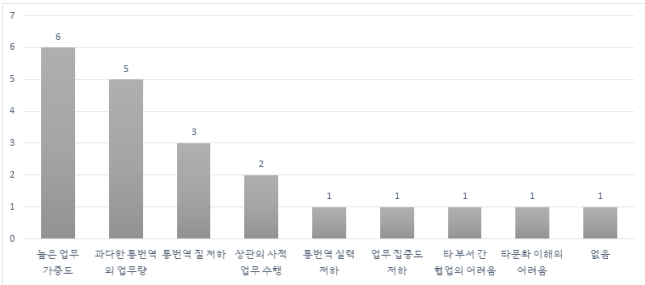
37) 1) 다양한 경험 및 지식, 2) 현황 파악 용이, 3) 업무 능력 향상, 4) 언어 능력 향상, 5) 실용적인 언어 표현의 습득, 6) 통번역 능력 향상, 7) 외부 기관과의 협업, 8) 신선함

38) 1) 과도한 통번역 외 업무량, 2) 높은 업무 가중도, 3) 통번역 실력 저하, 4) 통번역 질 저하, 5) 업무 집중도 저하, 6) 타 부서 간 협업의 어려움, 7) 상관의 사적 업무



〈그림 6〉 직함에 따른 업무와 통번역 병행에 따른 장점 (※ 막대 상단의 숫자: 응답자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장점으로써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은 ‘다양한 경험 및 지식’이며, 그 뒤를 이어서 ‘업무 능력 향상’, ‘현황 파악 용이’가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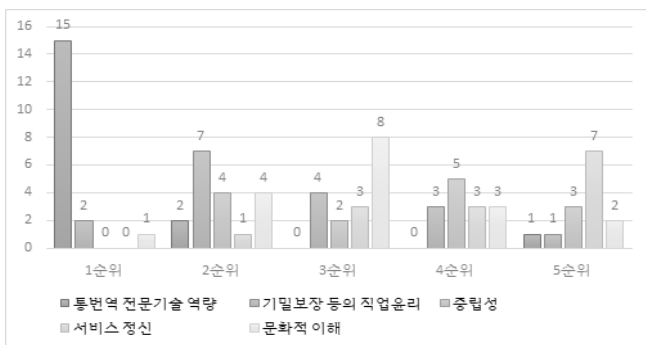


〈그림 7〉 직함에 따른 업무와 통번역 병행에 따른 단점 (※ 막대 상단의 숫자: 응답자수)

한편 <그림 7>과 같이 단점에 관하여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높은 업무 가중도’이며,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량’, ‘통번역 질 저하’가 그 뒤를 잇는다.

다음으로 통번역사의 역할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묻는 문항에 제시된 다섯 가지의 역량에 대해 중요도 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수행, 8) 타문화 이해의 어려움, 9) 없음
39)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복수 응답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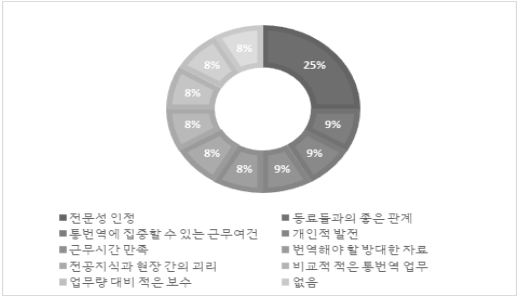
〈그림 8〉 역할 중요도 순위 (※막대 상단의 숫자: 응답자수)

의견을 고루 종합하면, ‘통번역 전문기술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 문화적 이해, 중립성, 서비스 정신’의 순으로 역량의 중요도 순위가 나타났다.⁴⁰⁾

통번역 업무에 대한 역할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⁴¹⁾ 앞서 첫 집단의 주관식 응답 분류를 활용해 역할 만족도에 따른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의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자신의 직무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이유를 정리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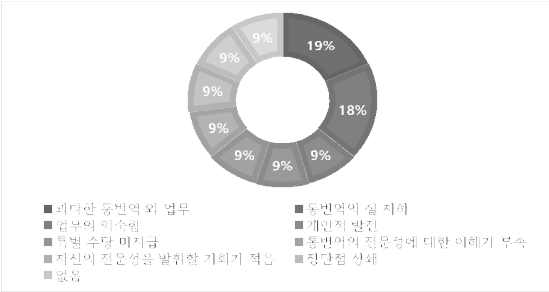
40) 1순위로 15명의 응답자가 ‘통번역 전문기술 역량’을 택했다.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역량은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가 선택되었다. 7명의 응답자가 2순위에 ‘기밀보장 등의 직업윤리’를 답했다. 또한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역량은 ‘문화적 이해’로 8명의 응답자가 3순위에 ‘문화적 이해’라고 답했다. 4순위의 경우, 의견이 고루 퍼졌으나 ‘중립성’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서비스 정신’을 선택한 응답자가 7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1) 매우 만족한다(16.67%), 만족하는 편이다(33.33%), 보통이다(44.44%), 매우 불만스럽다(5.56%)



〈그림 9〉 역할에 만족하는 응답자들의 만족의 이유

응답자의 25%가 ‘통번역 전문성 인정’이 직무 만족의 이유라고 답했으며, 그 외의 항목에서는 거의 빈도 상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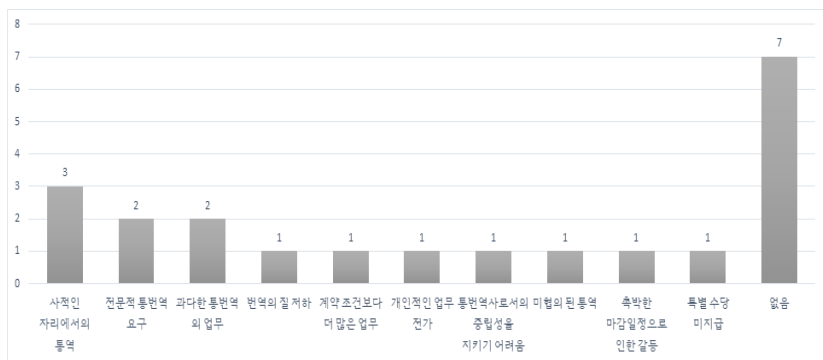
〈그림 10〉 역할에 덜 만족하는 응답자들이 언급한 이유

〈그림 10〉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지 못한 응답자들의 이유를 정리한 결과이다. 약 19%의 응답자가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 ‘통번역의 질 저하’를 이유로 꼽았으며, 그 외의 주도적인 의견은 없었다.

첫 번째 집단의 주관식 응답 분류 기준을 활용해 통번역 업무 수행의 보람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⁴²⁾, 응답자 중 9명은 ‘양국 소통을 도움’이라는 측면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긍정적 결과 도출’, ‘매끄러운 면담 진행’, ‘통역사로서의 공로 인정’의 순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이는 통번역을 직함으로 하는 응답자 집단과 비슷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42) 제시된 응답(빈도순): 양국소통을 도움, 긍정적 결과 도출, 매끄러운 면담 진행

다음으로 통번역 업무 수행 시 고용주의 기대/요구와 본인의 역할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답하는 문항에 대하여도 첫 번째 집단의 주관식 응답 분류를 이용해 응답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통번역 업무 수행 시의 역할갈등(※막대 상단의 숫자: 응답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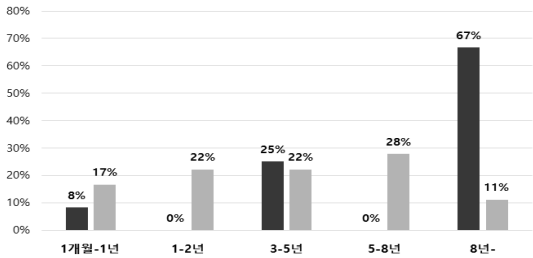
위에서 보듯, 응답자 가운데 7명은 고용주의 기대 및 요구와 본인의 역할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그 외에 응답자는 ‘사적인 자리에서의 통역’, ‘전문적 통번역 요구’,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 등 어려움을 답했다. 본 주관식 문항의 응답으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주도적 의견을 도출하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소속 대사관의 향후 통번역 수요 예측에 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빈도 분석한 결과,⁴³⁾ 통번역을 직함으로 하는 응답자 중 약 83%는 현행 수준 유지를 택했으며, 약 11%의 응답자는 통번역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향후 수요가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할 것이라 답한 통번역사 직함 소지 응답자들의 답변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제시한 것은 ‘일정한 외교 업무’, ‘일정한 대사관 업무’로 외교관계가 계속되는 한, 통번역의 수요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다.

43) 응답(빈도순): 일정한 외교 업무, 일정한 대사관 업무, 언어 능통자수 증가, 교역의 증대, 예측이 어려움, 이미 충원됨, 예산부족. 여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복수응답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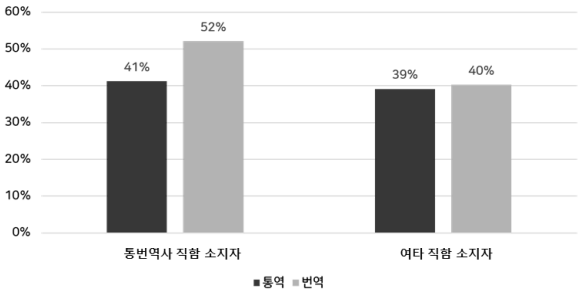
4.3 종합논의

종합논의에서는 실태조사와 인식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우선 실태조사의 항목 가운데 근무기간, 통번역 업무 비중, 연봉에 대한 두 응답자 집단의 분석 결과를 보다 정밀하게 비교분석한 후에, 종합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그림 12〉 근무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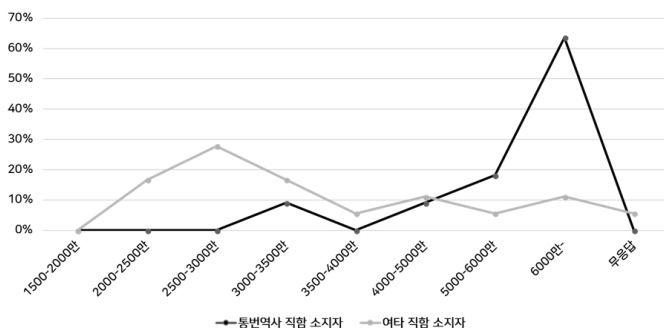
<그림 12>의 좌측 검은 세로 막대는 통번역사 직함 소지자, 우측 회색 세로 막대는 여타 직함 소지자의 근무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통번역사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들은 8년 이상 근무한 비율(68%)이 가장 높았으나, 여타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들은 8년 이상 근무한 비율(10%)이 가장 낮았다.



〈그림 13〉 전체 업무 중 통번역의 비중

응답자들이 대사관에서 맡은 여러 업무 가운데 통번역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의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통번역사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들은 여타 직함으로 근무하는 응답자들에 비해 전체 업무 중 통번역 업무의 비중이 전반적으

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번역의 경우 두 집단 사이에 12%p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통번역사 직함 소지자 집단 가운데 통역사, 번역사, 또는 통번역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그 외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들 중 약 40%의 사람은 통번역 업무만 맡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 집단은 대사관에서 하는 전체 업무 중 통역은 약 41.25%, 번역은 약 52.08%를 차지한다고 응답했다.⁴⁴⁾ 여타 직함을 소지한 응답자들에 대해 통번역 업무 외 추가적 업무를 담당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책 및 소속 부서 관련 업무 일반’, ‘행정 및 사무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타 직함으로 일하는 이 집단의 응답자들은 대사관에서 하는 전체 업무 중 통역은 약 39.16%, 번역은 약 40.27%를 차지한다고 하였다.⁴⁵⁾



〈그림 14〉 연봉

〈그림 14〉는 두 응답자 집단의 연봉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통번역사 직함으로 일하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연봉 600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여타 직함으로 근무하는 응답자들은 주로 2500-3000만원 대의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통번역사 직함 소지자들은 대다수가 대사관으로부터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응답자가 이들 가운데 약 81.82%로 나타났다.⁴⁶⁾ 한편 여타 직함 소지자들은 전원이 대사관으로부터 연봉을 지급받고 있

44) 다만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개인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45) 다만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역시 개인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으며, 2000-350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응답자가 약 61.12%로 나타났다.

이상을 토대로 응답자 집단 별로 분석한 실태조사에 관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이 된 주한외국대사관의 통번역 인력은 두 집단 모두 절대다수가 여성이다. 통번역사 직함을 소지한 인력은 다수가 정규직 직원으로, 높은 연봉과 근속율을 보여 전문성과 고용 안정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채용 시에 통번역대학원 졸업을 대사관 측이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짐작컨대, 대사관 내의 사용자들도 통번역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확고히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타 직함을 소지한 인력은 연령대가 첫 번째 집단보다 낮으며,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이들의 1/3 가량은 통번역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봉과 근속율은 첫 번째 집단보다 낮다.

두 집단 모두 주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지인추천을 통해 입사를 하는 것을 나타냈으며, 채용시험을 보는 비율이 첫 번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채용 시험에서 중시되는 부분은 인터뷰와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통번역 능력에 대한 평가였다. 특별히 통역보다는 번역시험을 보는 사례가 두 집단 모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번역의 업무 비율이 통역보다 조금 높으며 번역 업무의 언어 방향에서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 통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동시통역에 비해 순차통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여타 직함 소지자들은 동시통역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은 비서, 보좌관, 서기관 등의 여러 직함과는 무관하게 응답자 전원이 통역과 번역 업무 모두를 수행하고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의 경우, 두 집단 모두에서 기사와 인터뷰자료의 번역 비중이 높았으며, 대사관 내 외국인 상관계에게 보고하는 것이 번역의 주된 용도였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응답자 두 집단 모두에서 통번역대학원 출신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타 직함을 소지한 집단에서

46) 통번역 담당 인턴으로 근무하는 응답자만이 대사관으로부터 연봉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소정의 사례금만을 받는다고 응답했다(무급 인턴으로 협의 후 근무).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응답자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보아, 통번역대학원 졸업자들이 여타 직함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설문문의 인식조사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주요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두 집단의 응답자들 모두가 직무 수행을 위해 전문 통번역 교육을 받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구체적인 통번역사의 역할에 있어 두 집단 모두에서 다른 어떤 역할보다 전문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여타 직함 소지자들이 전문기술 역량의 중요성을 훨씬 중시했다는 결과로 보아, 통번역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비서의 직책을 소지한 응답자들이 실제적인 통번역 업무를 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커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통번역사의 역할 가운데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별도의 과목으로 교육되고 있지 않는 직업윤리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통번역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통번역사 직함을 소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여타 직함 소지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첫 번째 집단이 통번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 전문성, 보수의 안정성을 만족의 이유로 들었던 데에 반해 두 번째 집단은 전문성 인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두 집단의 응답자들은 통번역 업무 수행의 보람에 관하여는 양국의 소통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결과 도출해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고용주의 기대와 본인의 역할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는 의견을 내었는데, 다만 여타 직함 소지자들 가운데 전문통번역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응답자들 가운데 ‘전문적인 통번역을 요구’를, 통번역 교육을 이수한 여타 직함 소지자가 ‘과다한 통번역 외 업무’를 역할 갈등의 내용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입사 당시 예상했던 역할에서 더해진 직무의 전문성과 업무량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마지막으로 통번역에 대한 소속 대사관의 향후 수요 전망과 이유에 대하여는 두 집단의 결과가 상이하게 드러나 미래를 진단하는 시각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번역사 직함을 가진 응답자들이 현 수준 유지 또는 감소를 예상한 것은 언어 능통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5. 나가며

본고에서 주한외국대사관 통번역 인력을 대상으로 고용과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식 중심으로 설문문항 형식으로 인해 보다 소상한 답변과 업무의 구체적인 맥락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응답자의 수가 크지 않고, 임의적인 응답자 표집법을 사용한 관계로 업무담당 언어 별 인원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대사관 통번역 현황에 대한 일반화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통번역대학원에 전공 언어로 존재하는 중국어와 러시아어의 경우, 보안과 기밀유지 상의 이유로 통번역을 본국 국적의 외교관 인력이 담당한다는 해당국 주한대사관 측의 설명만을 접했을 뿐, 이들 대사관에 대하여는 설문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두 언어의 통번역을 대사관에서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정보가 추후 보완되면 좋을 것이다.

한국의 통번역대학원 졸업자 대부분은 특정 기관에서 상근하는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우스 통번역의 전문영역 별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 통번역, 그 가운데에서도 주한외국대사관에 몸담고 있는 통번역 인력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들의 직무 현황과 실태에 대해 기본적인 수치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아 주한외국대사관들이 통번역 인력에 대한 크고 정밀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겠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15) 「통번역산업의 시장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17(2): 113-133.
- 곽중철 (2001) 「외교 및 정치 회견(Diplomatic and Political Interviews) 통역에

관한 소고」, 『통번역학연구』. 5: 1-22.

김종희 (2013) 「국내 인하우스 통번역사 실태조사연구」, 『일본어교육』. 65: 17-30.

김종희 (2015)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무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일어일문학』. 65: 111-127.

김현정 (2015)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업무내용분석연구」, 『일어일문학』, 67: 27-43.

김희란·이지민 (2018) 「지방 자치 단체 통번역사의 역할, 지위, 정체성: 대구시청 소속 통번역사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9(1): 7-31.

박소영 (2015) 「스페인어학 및 교육학: 서한 외교 연설문 번역 교육에 관한 연구」, 『스페인어문학』. 75: 55-76.

박지영 (2016)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고용현황과 직무분석」, 『번역학연구』, 17(5): 127-152.

이혜승 (2006) 「정치텍스트의 특성과 통역교육 -비유적 표현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8(2): 121-139.

임세인 (2018) 「통번역사의 직업지위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조직 내 직업지위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0(1): 147-176.

최진실 (2014) 「한국 외교부 대변인 언론 브리핑 번역 -녹화파일, 전사본, 번역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40: 47-62.

홍정민 (2014) 「한국 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와 기자의 지위에 관한 비교 연구」, 『통역과 번역』. 16(1): 253-294.

황지연 (2003) 「정치외교분야의 한→중 통역」, 『중국학연구』. 26: 439-458.

Baigorri-Jalón, Jesus. & Fernández-Sánchez, Manuela (2010) 'Understanding High-level Interpreting in the Cold War: Preliminary Notes', *Forum* 8(2): 1-29.

Yang, Ming-xing (2011) 'The Multi-layered Norms for Diplomatic Interpreting Teaching in the Perspective of Informatization', *Computer-Assiste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China* 5: 49-53.

부록: 설문지

[1부] 응답자 정보

1. 귀하의 연령은?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

(1) 남성 (2) 여성

3. 현 대사관에서의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1) 1개월-1년 (2) 1~2년 (3) 3~5년 (4) 5년~8년 (5) 8년 이상

4. 본인의 현재 직함은 무엇입니까? ()

(1) 통역사 (2) 번역사 (3) 통번역사 (4) 비서 (6) 서기관 (7) 보좌관 (8) 인턴
(9) 기타(선임연구관 및 통역관)

5. 현 대사관에서의 본인의 고용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정규직 상근 통/번역사
(2) 계약직 상근 통/번역사
(3) 파트타임 통/번역사
(4) 대사관 상근직원
(5) 대사관 계약직 직원
(6) 기타 ()

6. 통번역 시 담당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1) 영어 (2) 독일어 (3) 프랑스어 (4) 스페인어 (5) 중국어 (6) 일본어 (7) 아랍어 (8) 포르투갈어 (9) 기타()

[2부] 고용 자격·절차 및 직무 내용

7. 본 대사관에 통번역, 인턴, 비서, 서기관 등으로 입사/고용 시 본인에게 요구되었던 중요한 자격 요건을 설명해 주세요.

- (3)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동시통역 구술시험
 - (4)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동시통역 구술시험
 - (5)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
 - (6)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 필기시험
 - (7) 외국어 구술시험 일반
 - (8) 외국어 필기시험 일반
 - (9) 인터뷰
 - (10) 기타 ()
11. 대사관이 귀하의 통번역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이 있습니까?
- (1) 예 ()
 - (2) 아니오 ()
- 11-1 위의 답이 “예”라면 누가 하는 어떤 내용의 OT/교육인지 설명해 주세요.
()
12. 대사관 통번역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통번역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필요()
 - (2) 필요 ()
 - (3) 보통()
 - (4) 필요하지 않음 ()
 - (5) 전혀 필요하지 않음 ()
13. 대사관 내에서 본인이 통번역 외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직책 및 소속 부서 관련 업무 일반
 - (2) 행정 및 사무 업무
 - (3) 연구 및 조사 업무
 - (4) 의전 업무
 - (5) 기타 ()

14. 대사관에서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 전체 가운데 통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어떠합니까?
전체 업무 가운데 통역 () %, 번역 () %

15. 대사관에서 통역 업무를 하십니까?

- (1) 예 ()
- (2) 아니오 ()

15-1 위의 답이 “예”라면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의 비중은 대략 어떠합니까?

말는 통역 가운데 순차통역 () %, 동시통역 () %

15-2 위의 답이 “예”라면 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의 언어 방향의 비중은 대략 어떠합니까?

말는 통역 가운데 외국어→한국어로의 통역 () %, 한국어→외국어로의 통역 () %

15-3 대사관 내에서 본인의 통역의 주된 사용자(통역을 해주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 (1) 대사
- (2) 부대사
- (3) 외교관
- (4) 기타 ()

15-4 본인이 주로 말는 통역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

- (1) 예방
- (2) 면담
- (3) 세미나/워크샵
- (4) 공식회담
- (5) 기자회견
- (6) 기타 ()

16. 대사관에서 번역 업무를 하십니까?

- (1) 예 (1)
- (2) 아니오 ()

21. 통번역 업무 수행 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2. 통번역 업무 수행 시의 고용주의 기대/요구와 본인의 역할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3. 귀하는 대사관으로부터 연봉을 지급 받습니까?

- (1) 예 ()
- (2) 아니오 ()

23-1 위의 답이 “예”라면 귀하의 연봉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설문지에 답하는 현재 기준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퇴사하신 분들은, 퇴사 직전의 연봉으로 표기 부탁드립니다.)

- (1) 1500-2000만원 (2) 2000-2500만원 (3) 2500-3000만원 (4) 3000-3500만원
- (5) 3500-4000만원 (6) 4000-5000만원 (7) 5000-6000만원 (8) 6000만원 이상

23-2 위의 답이 “아니오”라면 통번역 관련 업무에 대해 받는 요율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24. 소속 대사관의 향후 통번역 수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 (1)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 (2)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
- (3)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 (4) 잘 모르겠다()

24-1 위와 같은 답변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Abstract]

A Survey into Job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Personnel in Char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Foreign Embassies in Korea

Hong, Sulyoung · Jeong, Cheolj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dentify the job characteristics, employment status and perceptions of personnel in charg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foreign embassies in South Korea. Although some amount of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al status of in-house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South Korea's public and private sectors, little attempt has been made to conduct a job/perception analysis of those working in foreign embassies in Seoul. Investigating foreign embassies are of significance in that embassies are not only major and long-standing employers of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but also represent an important and specialized sector of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in South Korea. To this end, 30 respondents of 7 language pairs working in 17 embassies answer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Questions include 1) basic information on respondents' job profile, 2) employment procedure & job analysis, 3) work environment & perceptions. Data analysis us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s carried out in 2 phases. First, results of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is presented according to 2 groups: those working under the job title of interpreter/translator and those who hold different job titles. Second, the data of both groups are combined and a comparative analysis and data interpretation is presented.

- ▶ Key Words: embassy interpreting & translating, employment status, job analysis, perception analysis
- ▶ 주제어: 대사관 통번역, 고용실태, 직무분석, 인식조사

홍설영(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겸임교수

harahong@daum.net

관심분야: 통번역 교육/실무, 수사학, 질적연구

정철자(제2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

cjeong@hufs.ac.kr

관심분야: 교육과정개발평가, 통번역교육, 정체성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 4일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5일